

제시문들에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드러나 있는데, 그 관계가 밀접한지 여부와 개인이 사회 제도에 희생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지 여부로 비교될 수 있다. 우선, (가)의 로마인들은 개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철저히 분리된 것으로 보며, 개인이 개인적 행복을 위해 사회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로마인들은 노예제도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노예들이 열악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사회 제도의 탓이 아닌 그들의 운명이라고 보아서이다. 또한 로마인들은 노예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노예들 자신이 사회에서 '훌륭한 노예'가 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나 타인이 그들을 구제할 의무는 없고, 노예들이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본 것이다. 이 때 훌륭한 노예가 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제도에의 순응을 뜻한다.

(나)의 아내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사회 제도에의 순응을 거부한다. 그녀는 혼자 출가하여 놀겠다는 남편에게 절연을 선언한다. 이는 당시의 인륜, 예의, 염치와 같은 사회 제도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출유한다면 자신의 행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녀에게 있어 한 쌍의 부부 중 '누구는' 행복하게 나가 놀고, '누구는' 혼자 불행히 살다 죽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니다. 그와 같은 불균형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바에야, 연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하며, 개인과 사회의 행복이 상충한다면 개인은 사회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이 때 당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공동체에 이 원리를 적용시킬 때에 고려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된다. 즉, 공동체 전체가 더 행복해진다면 몇몇 개인의 행복이 감소되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복의 합이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이 반영되기도 한다.

제시문 (나)와 같은 입장에서는 국가군 C를 이상적이라 여길 것이며, (다)의 입장에서는 B를 이상국가로 볼 것이다. 우선, 제시문 (다)는 B국가군보다 C국가군을 선호할 것인데, 이는 (나)가 평균보다 표준편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불행 그 자체보다, '여자 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누구는' 홀로 불행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한다. 행복도의 평균이 높기보다, 표준편차가 낮아 행복도의 격차가 작은 국가는 B와 C중 C이다.

물론 (나)도 행복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부인이 원하는 것은 '함께'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국가군의 행복도는 그 중 가장 낮은 국가도 1.85가량으로, '행복하지 않다'와 '보통이다' 사이에서 '보통이다'에 가깝다. C국가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평등하게 불행한 것은 아닌 것이다. 개중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평균이 2를 약간 초과해 '보통이다'와 '행복하다'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B국가군에 대해 2.15~2.3으로 행복도 평균은 높지만, 표준편차가 0.6~0.725로 높으므로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반면, (다)의 입장에서는 국가군 B를 선호할 것이다. 이는 (다)가 형평성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 커진다면 불행한 개인이 몇 생기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는 표준편차는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중요시한 것으로, 표준편차가 높지만 평균도 높은 B와 맞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표준편차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다)와 같은 입장에서는 C국가군은 전혀 고를 이유가 없다. 평균이 낮기 때문이다.

즉, (나)는 표준편차와 평균 중 표준편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군 C를 선택할 것이고, (다)는 평균만 고려하기 때문에 국가군 B를 선택할 것이다.